

## 역사적 권력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백 민 정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1.

서평을 부탁받기 전부터 나는 이 책의 제목에 끌렸었다.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진면모를 살피기 위해선 어디나 그렇듯 권력의 문제, 인간이 빚어내는 정치적 불협화음과 화음의 혼성을 엿보지 않을 수 없다. 정치를 인간이 구현하는 모든 종류의 공존의 기술이라고 광의로 정의할 때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서 권력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권력이란 특정한 개인 혹은 특정한 시점에 발화되는 예외 현상이 아니라 공존하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보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실의 뜨거운 이슈이자 치명적 약점인 사도세자 문제를 본격 거론하면서 권력과 인간의 문제를 다룬 이 책이 논자의 시선에 너무도 매력적인 의미를 띤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더구나 숨길 수 없는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단숨에 독파할 만큼의 극적인 즐거움과 흥미를 준다는 점이다. 『한중록』을 다시 번역한 저자의 학문적 솜씨와 수준이 돋보이는 여러 대목에서 우리는 학

술적 엄밀함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독서의 즐거움마저 만끽할 수 있다. 그러니 저자가 남들이 못 가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러운 마음까지 든다.

다수의 공명을 얻기 위해 대중서들이 강조하는 선악의 이분법, 권선징악적인 선인과 악인의 이분법을 지적하며 저자가 사도세자 문제를 이 수준에서 접근하는 우리 시선의 진부함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누군가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공격하거나 애호하는 맹목적인 혹은 무분별한 감정의 집단적 폭력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뒤주에 갇혀 죽은 불쌍한 사도세자! 이 단순한 감정어입이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공감의 정서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우리 시야를 너무도 협소하고 편협하게 만든다. 이런 맹점을 이 책보다 더 신랄하게 들춰낸 작품도 드물 것이다. 저자는 학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온 혜경궁 홍씨의 작품 『한중록』을 새롭게 조명한다. 다시 말해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개인문집 등 동시대 유사 내용을 수록한 작품들을 『한중록』과 상호 비평하며, 사도세자 문제에 접근하는 보다 타당한 논리와 시선을 제공한다. 결국 먼 길을 돌아 다시 원래 자리인 『한중록』으로 귀환하면서 저자는 이 작품이 혜경궁의 사적 이해관계로 점철된 편향된 기록이 아니라 당대 역사에 대한 나름의 충실한 대변자임을 인정하게 된다. 사도세자 문제를 다른 어떤 저작보다 세심하고 정밀하고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찬사서 및 문집 기록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자료의 내용적 신빙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미쳐서 죽은 것이며,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영조마저 죽이려고 한 반역의 조짐을 보였기에 그 용서받지 못할 개인의 광증 때문에 죽은 것이다. 한 개인으로 볼 때 참으로 불쌍하지만 사도세자는 누구 잘못도 아닌 본인의 광기로 죽은 것이고, 더구나 세간에 떠돌듯 당쟁의 희생물로 죽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 2.

이 책은 사도세자 죽음의 진실을 해명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7쪽). 세간의 인기 있는 역사소설, 심지어 상당수 학자들마저 사도세자 문제를 당쟁과 정치의 문제로 과잉 해석해온 과거를 반성하며 그 죽음의 실체를 본격 해부한 것이다. 사도세자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죽음 이후 영조의 반응과 정조의 역사 왜곡 그리고 정조 사망 후 순조 때 혜경궁의 『한중록』 집필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말대로 근 일 세기의 역사를 다루었다(19).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자면 사건의 배경과 경과, 나아가 그에 대한 담론의 변화까지 알아야 한다고, 특히 담론의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료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결국 엉뚱한 해석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책의 중요한 성과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말한다(19).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에서 우선 사도세자 사건의 정확한 전말을 풍부한 사료를 거쳐 나온 검증된 결론을 통해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이후 전개된 다양한 담론의 변화까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보자. 저자는 종전의 몇몇 학자들이 ‘사도세자가 미쳤다’는 『한중록』의 기록을 의심하고 부정한 것은 『승정원일기』와 『영조실록』 같은 일차적 사료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132). 이에 다양한 사료를 들어 사도세자 광증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죽음이 정치적 희생의 결과가 아니며 일차적으로 본인의 도를 넘은 파행에 의한 것임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저자는 『영조실록』 1762년 윤5월 13일 기록을 예로 든다. “세자가 탄생했다. 세자는 타고난 성품이 탁월하여 임금이 매우 사랑했다. 그런데 열 살이 넘어서자 점차 학문을 게을리 했고 대리청정을 한 다음부터 병이 생겨서 본성을 잃었다.”(133) 동년 8월 26일 영조에게 올린 사도세자 장인 흥봉한의 차자에서도 사도세자에게

광증이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저자는 이것이 영조의 비답을 받은 것으로 결국 영조의 승인을 얻은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았다(140/332, 주석20). 실록 자료 외에 저자는 영조가 직접 쓴 「폐세자반교」의 주장을 근거로 든다. “예로부터 무도한 임금이 하나둘이리오마는 세자 때부터 이처럼 무도한 자는 일찍이 듣지 못했도다. 풍족한 곳에서 태어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마침내 미치기에 이르렀다.”(136)

책의 말미에서 ‘길 잃은 역사 대중화’를 논평하며 저자는 사도세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었음은 『한중록』에만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영조가 사도세자 무덤에 넣으려고 직접 쓴 묘지명, 사도세자가 장인 홍봉한에게 보낸 간찰, 정조가 사돈 김조순에게 한 말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351). 『영조실록』 자료를 강조한 것은 위의 사례들 때문이다. 1800년 6월 정조는 장차 사돈이 될 김조순을 창경궁 영춘헌으로 불러 다음과 같은 밀담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김조순 집안에 의해 『영춘옥음기』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병을 누가 모르리요. 그런데도 끝내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죄를 없애주시지 않았으니 지극히 애통하오.” 김조순이 기록한 정조와의 밀담 내용을 두고 저자는 “『영춘옥음기』를 그대로 믿는다면 영조는 물론 정조도 사도세자의 광증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37)라고 주장한다. 저자가 강조한 마지막 증거 사료 하나를 더 살펴보자. 사도세자가 장인 홍봉한에게 직접 보냈다는 편지 내용이다. “제가 본래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율화증이 있는데 지금 더위까지 먹어 임금을 뵈고 나오니 율화가 더욱 극하여 미친 듯이 괴롭습니다. 이 병증은 의관들과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경께서는 처방을 잘 알고 계시니 몰래 약을 지어 보내주시지요.”(136) 저자는 사도세자의 이 서신에 대해 “서울대 권두환 교수 소개, 연합뉴스 2007년 6월 15일 보도”(332, 주석19)라고 주석을 달았다.

사도세자 죽음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해부하기 위해 저자는 한중록 외

에 위와 같은 사료들을 꼽았다. 나는 책의 4부 ‘죽음과 사후’를 읽으며 특히 ‘왜 하필 뒤주인가’, ‘죽음으로 가는 길’ 등에서 사료에 근거한 저자의 논리적인 해명과 놀라운 말솜씨를 보며 감탄했다. 지금까지 사도세자 죽음과 관련해 추측 가능한 당시 정황을 이처럼 그럴 듯하게 서술한 작품은 보지 못한 것 같다. 저자의 설명을 통해 왜 하필 뒤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상당히 타당한 정황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대목에서 저자가 보인 담담한 필체와 서술 분위기는 읽은 이로 하여금 저자의 주장을 믿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한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이 극적인 상황 전개에 이르기까지 사도세자의 정신질환, 즉 광기를 논증하기 위해 열거한 사료들 역시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조 실록』 내용은 비판적으로 감안하여 수용한다고 해도 그 외의 자료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가령 영조의 「폐세자반교」는 저자가 주장하듯이 정조의 자기 아버지 성화 사업의 일환인 사도세자 행장만큼이나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왜 후자의 행장은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전자의 영조 반교문의 가혹한 평가와 단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장인 흥봉한, 정조의 사돈 김조순의 기록은 『한중록』 만큼이나 특정한 정치적 의사가 투영된 주장을 담고 있다. 이 말은 『한중록』의 혜정궁과 그녀의 친정아버지 흥봉한, 김조순 등이 특수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언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누구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저작과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편 저자가 든 사례 가운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사도세자가 장인에게 직접 써서 보냈다는 편지글의 주장이다. 서울대 모교수의 소개 및 연합뉴스 보도라는 것이 사도세자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신빙성 있는 역

사적 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향간에 전하는 야사야 거론할 것도 없다고 저자도 말했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자료 역시 유사한 한계를 갖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결국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자료들을 거쳐 저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사도세자의 광증에 대해 혜경궁이 꾸뻐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혜경궁이 그려낸 병증의 상세한 내용을 생각하면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중록』처럼 한 인간의 내면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려낸 것은 『한중록』 이전은 물론이려니와 그 후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무리 천재라 해도 전례 없던 일을 이렇게 적실하게 그리지는 못할 것이다.”(140) 저자는 이곳에서 사도세자 광증의 정도에 대해서는 『한중록』이 없었다면 거의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한중록』은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도 말했다. 『한중록』 기록에 대한 저자의 이 같은 높은 평가는, 사실 저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중록』을 나머지 유사하거나 혹은 유사하지 않은 사료들의 진실성과 의혹을 판단하는 준거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승정원일기』, 『영조실록』과의 유사성을 증거물로 들 때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오직 『한중록』에서만 보이는 희귀한 내용임을 의미 있는 논거로 내세웠으며, 나아가 영조와 사도세자의 능행 수가 경우에는 역사 기록이 하도 완곡해서 『승정원일기』 및 실록 내용이 『한중록』과 상이해 보이지만 이 경우도 『한중록』이 가장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므로 『한중록』을 통해 완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관찬사서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관점을 피력한다(167~169). 논자가 보기에 저자가 든 다양한 사례들은 결국 원점에 놓인 『한중록』 기록을 통해 다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써 저자가 강조한 진짜 역사 세우기의 구체적 증거들로 상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80).

저자는 역사 왜곡이 역사 불신론 또는 역사 허무주의론을 갖게 하기에 역사를 위해 대중역사서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역사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유

사' 역사가 아닌 '진짜' 역사를 내세우는 저자의 주장(380)에도 웬지 모를 반발심이 생긴다. 누가 과연 진짜 역사에 대한 확증을 내세울 수 있을까? 진짜·가짜의 이분법으로 역사적 사건을 파헤치고 그 증거를 대기 위한 적실한 사료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 이유일까?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 대목에서 저자가 대중역사서에 대해 느낀 당혹감과 불편함이 마찬가지로 양상으로 나에게도 밀려왔다. 무엇이 역사적 진실인지에 대한 문제는 수학적 문제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지적 탐색과 성찰도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와 진짜를 구별하려는 원리주의적 관심은 오히려 비판적 역사 성찰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 3.

논자 역시 시시콜콜 캐물은 위와 같은 자료 관련 문제 외에 사실 이 책의 흥미로움 이면에 깔린 보다 중요한 전제 하나를 더 문제 삼고 싶다. 이것은 제목에서 밝혔듯이 정치적 권력의 속성을 대하는 저자의 시선과 관련된 문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몇 번 인용하며 저자는 비정한 권력의 속성 혹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로서의 권력의 잔혹함을 언급했다(325). “권력은 때가 되면 놓아야 한다. … 권력의 존립을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권력의 비정함은 여기서 나온다. … 권력자에게는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없다. … 나누지 않는 권력은 외롭고 위태롭다.”(325) 그러나 저자의 이런 발언들은 권력을 제도적·역사적 관점에서 정치 역학적으로 다루기보다 오히려 탁월한 소수의 개인, 기괴하고 낯설지만 천재성과 능력을 갖춘 특별한 개인의 위상과 관련해 권력 문제를 심미적·감성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권력과 인간』

이라는 제목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싶은데, 내가 보기에 저자는 권력 문제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개인을 상정한 듯하다. 책의 서두에서 “영조, 사도세자, 정조 등 절대권력자의 인간적 고뇌와 내적 갈등”을 언급했듯이 권력 앞에 단독자로 선 특별한 개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7). 하지만 권력의 문제가 추상적 혹은 심미적 차원에서 다뤄질 수 없듯이, 군주를 포함한 어떤 존재도 정치적 공존의 장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관계 맺는 한 순정한 개인으로서 다뤄지기 어렵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세자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 혹은 진짜 실체를 주장하는 저자의 입장이 이 문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세자라는 상징적 존재의 죽음은 이미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며 그것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해석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쟁점의 하나다. 이 문제를 다루는 사가의 시선이 얼마나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지 우열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이것이 특정한 정치편향 혹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 가령 저자의 핵심 주장대로 사도세자가 자기 심리상의 질병 때문에 죽었고 비정한 권력이 자기 아들마저 죽게 했다면 이것은 많이 모자랐던 한 인물 사도세자와 그런 모자란 자식조차 품지 못했던 또 다른 각박한 개인 영조 사이의 문제로 끝나고 말 것이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자식을 죽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이유를 떠올려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영조는 누구보다 크게 분노했고 아들을 반드시 죽이려고 들었다. 권력의 속성 때문인지 개인의 성격 때문인지 자식을 사랑하는 보통 아버지의 눈에는 아쉬움이 남는다.”(218) “영조는 세자가 죽음에 다다른 것을 보고서야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 더욱이 이재난고 등에 의하면 영조는 환궁하면서 개선가를 연주하게 했다고 한다. … 서울 사람들은 아들 죽여 놓고 역적을 토벌한 것처럼 개선가를 울리며 대로를 행진하는 득의양양한 영조를 보았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227) 영조와 사도세자의 문제를 다루는

저자의 시선은 이처럼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비정한 권력 앞에 선 특정한 개인의 내적 고뇌와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과도한 성격의 아버지와 미친 아들 사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 이들이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라고 해도 이 죽음을 둘러싼 부자간의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저자는 심리학자 혹은 정신의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며 사도세자의 광증에 대해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 분야 전문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기다린다고 했지만(195) 왜 우리가 과거 어떤 인물의 개인적 정신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도세자는 실제 어리숙하고 능력이 부족했으며 결국 자신의 기행과 죄에 의해 죽은 인물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사도세자 죽음의 원인 규명에 집중하는 저자의 학문적 천착이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논자가 보기에 사도세자 죽음의 실제적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와 사도세자 사망 이후 이 죽음의 의미를 둘러싸고 전개된 다양한 층위의 정치적 담론들을 추적하는 문제는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광인 사도세자 개인의 행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 존재로서 사도세자와 그를 둘러싸고 전개, 유포된 각양각종의 정치 담론이 우리 입장에서 재음미할 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세자로서 그는 이미 사적 개인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공인, 당대의 정치 갈등을 점화시킬 만한 중요한 상징적 지위와 속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도세자가 친소론·반노론 경향의 당쟁 논리에 휩싸여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대 사람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도세자 죽음의 문제를 당쟁과 관련해서 재해석하려고 했는지 그 정치적 이해관계와 논쟁의 속성을 검토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이런 종류의 논쟁과 담론의 성격을 살펴보면 과거 유교 사회에서 권력의 배분과 견제,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떤 이념적 명분과

논리에 의해 작동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도 몇 차례 거론했듯이 이미 사도세자 사망 직후부터 그의 죽음을 둘러싼 당파 간의 정치적 싸움, 이념 대립이 있었다(139). “사도세자에게 죄가 있다는 논리는 혜경궁 친정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반대파인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친정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 한편 사도세자에게 죄가 없다는 논리는 주로 재야에서 주장했다. 권력에서 밀려나 있었던 남인이나 소론세력이 집권노론에게 책임을 묻고 공격하기 위해 쓴 논리다. 이 공격에서 혜경궁 친정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혜경궁 친정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쪽이다.”(139) 나는 사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후대의 이 같은 담론들의 정치적 전개 양상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권력과 정치담론, 정치행위가 구체적인 상황의 전개에 따라 사회구성원인 인간의 신념과 상호 교호하면서 새롭게 구성되고 파기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 나는 『한중록』이란 작품의 정치적 의미, 혜경궁 홍씨가 견지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는 “사도세자가 미치지 않았다는 명제는 반대 근거가 더 많고 친소론적인 사도세자가 노론의 견제를 받아 죽었다는 주장은 당대의 정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러니 친정을 변호하기 위해 『한중록』을 썼다는 명제도 옳을 리가 없다”(355)고 총평했다. 비록 정조 사후 혜경궁 집안이 몰락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번창하던 때 썼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자신이 속한 가문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한 분명한 정치적 의도 하에 『한중록』을 작성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점은 저자 본인도 인정한 바다. “혜경궁이 『한중록』을 통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자신의 친정은 역모로 몰릴 만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죄가 없고 이후 여러 가지 각종 사소한 혐의도 사실이 아니

라고 했다. … 얼핏 보면 『한중록』은 공홍파를 비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강한 상대를 겨누었다. 바로 정조다. … 정조는 사도세자의 비행과 과오를 외가를 비롯한 주변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논리를 구축해갔다. 『한중록』은 일견 정조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조의 논리에 동조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은 분명 정조가 조성한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318~319) 이만큼 『한중록』의 명백한 정치적 의도, 자기 가문을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한 홍씨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설명이 어디 있을까. 정치와 관계없는 순정한 개인, 사회로부터 고립된 순수한 개인의 내면세계란 오히려 하나의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 어떤 인물, 어떤 저작도 글자 그대로 정치적인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런 한에서 정치권력의 역사적 속성과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논의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사도세자 당쟁희생 설은 어처구니없는 역사 왜곡의 사례라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과거를 성찰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역사적 소재 혹은 정치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유교 왕조사회에서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치무대의 주인공인 군왕과 지식인 관료의 격론과 쟁투가 어떻게 정치의 장을 요동시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 4.

저자는 금등지서 사건을 통해 정조의 역사 바꾸기, 아니 그의 심각한 역사 왜곡에 대해 진단했다. 1793년 채제공이 올린 상소가 사도세자 죽음의 문제를 오로지 노론 역적의 잘못으로 돌리자 이로 인해 노론 좌의정 김중수 등이 논란을 벌였고 이에 정조가 마침내 금등지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242~245). 정조가 금등지서를 폭로하자 채제공은 곧바로

그 사실을 경상도 선비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점에 임금이 동조했으니 그 뜻을 받들어 이제부터 사도세자 신원에 박차를 가하라고 전했다 한다. 즉위 초부터 『승정원일기』 세초 등 역사 기록의 말소 혹은 묵살을 통해 정권을 이양 받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신원 작업을 통해 명백한 역사 왜곡을 추진했고 이처럼 자신과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등지서 이야기를 대부분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245). 정조의 사도세자 추승과 성화를 통한 역사 바꾸기를 저자가 전적으로 역사적 사기 혹은 거짓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단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사이비 유사 역사와 그렇지 않은 진짜 역사를 구분한 저자의 엄정한 구획에서 나온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것은 상당히 일면적인 혹은 단선적 관점의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조의 역사 왜곡을 글자 그대로 심각한 역사적 사기 행각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조의 치세에 대해 의미부여 할 수 있었을까?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죽었다. 정조의 권력은 비록 민주적인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착한 권력이었다. 제2, 제3의 권력이 백성을 침탈하지 않도록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유교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조선의 이념과 체제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임금이 그렇게 아끼던 조선을 뒤로 하고 그를 낳고 가르친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313) 절대권력자로서의 정조는 마키아벨리의 군주처럼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했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왕조사회의 백성에게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잠재적 최고권력을 가진 사도세자 문제를 개인의 정신질환의 문제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듯이 정조의 역사 바꾸기 사업도 단순히 거짓과 위선의 문제로 처리할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조를 능숙한 사기꾼으로 평가한다면 백성 앞에 치세기의 성군처럼 군림했던 것은 우스꽝스

런 정치적 연출에 불과할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조선은 도덕과 학문을 정치의 근간으로 삼은 정교일치의 국가를 지향했고, 이 점은 초기 건국의 사대부들도 공유한 전형적인 유교적 이상이었다. 중국 명청시대 황제 중심의 독재체제와 달리 지식인 관료의 철저한 견제를 받았던 조선의 국왕은 절대지존의 자리를 상징적으로라도 존립시키기 위해 자신이 학문과 정치의 수장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영조와 정조 모두 정치와 학문 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군사(君師)라고 자처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다. 이들에게 권력은 지식인과 백성, 정치이념과 현실의 거리를 메꾸고 조율하기 위한 힘의 균형을 의미했다. 서연과 경연 등 제왕학 수업이 왕권에 대한 사대부의 권력견제를 의미했다면 정조의 경연비판과 경사강의 및 초계문신제 시행은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위한 단계별 플랜이었다. 정조의 사도세자 추송 사업조차도 이런 상징적 왕권의 강화와 관련된 정치사안이며 이 또한 조선의 역사적 권력이 추동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의 조작과 거짓을 고발하는 것에 앞서 왜 그런 사건이 역사적 의미를 갖고 등장하는지 특정한 담론의 형성 원인과 유포 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인간적 시선에서는 매우 친밀한 두 사람의 관계가 정치 역학적 권력의 장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빚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령 정약용도 정조의 정책들, 규장각 설립 및 초계제 운영, 친위병 양성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조가 문예와 학술을 이용해 정치적 사인(私人)을 양성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대립각이 정치의 전체 구도, 즉 권력의 형성과 견제라는 보다 심층의 차원에서는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사도세자 죽음의 문제를 왕실 구성원 개인의 일로 접근함으로써, 더구나 개인의 광증에 결정적 무게를 둬으로써, 유교사회에서 정치권력이 형성되고 유지되며 이양되는 역사적 과정을 의미 있게 활용하지 못했고 이로써 세자

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담론의 유포와 전개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왕조국가에서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명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역사성과 사회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문제를 개인의 시선에서 심미화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조선사회의 정치권력과 인간이라는 주제의 핵심을 비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권력은 그 자체로 비정한 것도 잔혹한 것도 결코 아니다. 권력의 향배를 잘 알아서 때에 맞춰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모두 권력을 추상화, 형이상학화한 것이라고 본다. 권력의 향배와 정치의 운영은 오히려 사도세자 죽음을 상징적으로 재해석하고 정치담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포된 사후의 다양한 논쟁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반면 교사든 긍정적 계기든 우리가 다시 한 번 과거를 돌아보고 음미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유와 논리의 연관성 속에서 역사적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 위함일 것이다.